

#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으로 본 제주 무혼굿과 애도의 수행

-제주·세월호 무혼굿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지연\*

<차례>

1. 서론
2. 무혼굿의 행위자 구성과 연결망(network)
3. 무혼굿 네트워크의 효과와 애도
4. 결론: 애도의 윤리

<국문초록>

본 연구는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과 ‘번역(translation)’의 개념을 원용하여, 의례에서 애도가 수행되는 과정과 그 효과를 분석한 글이다. 무혼굿의 목적은 죽은 자를 위무(慰撫)하고 유족과 공동체가 그 죽음을 애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81년 치러진 제주의 무혼굿 사진 자료와 2014년 제주 탐동 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무혼굿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관계망 속에서 애도의 번역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ANT의 관점에서 세계는 언제나 인간과 물질로 구성되는 하이브리드 세계로 존재한다. 이러한 ANT의 관점에서 무속 의례는 복수의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굿의 형식을 역동적으로 파악하는데 기여한다. 무혼굿에서 인간 행위자는 굿의 진행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소미(小巫)와 악공, 심방을 비롯하여, 굿에 직접 참여하는 유족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의례의 현장을 기록하는 촬영자 및 참가자 모두가 해당된다. 또한 굿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물질은 신의 존재를 재현하

\*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조교수

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자들과 연합하여 의례라는 연결망을 드러낸다. 이처럼 무혼굿에서 애도의 실천은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성·재구성되며, 새로운 애도 주체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네트워크 안에서 전개되는 무혼굿의 애도는 정지된 감정 혹은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동적인 과정이자 관계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혼굿의 네트워크가 생성하는 애도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혼굿은 서로 다른 성격과 속성을 지닌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정동의 효과를 불러온다. 이러한 정동은 절망과 비통의 정서를 새로운 삶의 의지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실천적이다. 둘째, 무혼굿의 네트워크는 수사자(水死者)의 불완전한 죽음을 애도 가능한 사건으로 번역한다. 이로써 망자의 존재는 의례에서 건져지고, 소환되며, 천도되는 존재로 재구성된다. 셋째, 기술적인 비인간 행위자의 연결을 통해 무혼굿의 애도는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 새겨진다. 이러한 연결망은 애도가 매체에 포착되고 저장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물질화하여 감각 가능한 실체로 만든다.

ANT의 관점으로 살펴 본 무혼굿의 애도는 망자를 단순히 회상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관계를 재구성하며 살아있는 자들의 연대적인 실천으로 드러난다. 무혼굿의 네트워크는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며, 망자의 존재 방식을 새롭게 구성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제주 무혼굿, 세월호 무혼굿,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번역, 애도, 정동, 새김, 물질성

## 1. 서론

인간은 돌잔치, 졸업식, 결혼식 등 삶의 다양한 전환기에 의례를 행한다. 이러한 의례는 개인의 정체성 변화를 사회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마련되며, 따라서 의례의 당사자가 주인공이 된다. 반면 장례 의례는 죽은 자를 위한 의례이지만,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의례의 참여자들이 중심이 되는 의례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죽은 자를 위해 마련된 의례가 실제로는 살아

있는 자가 망자의 죽음을 다루기 위한 통과의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례는 복합적 의례<sup>1)</sup>로 기능한다.

한국 무속에서 죽음을 다루는 의례는 지역에 따라 형식과 명칭이 다르게 전승되고 있다. 전라도의 씻김굿, 평안도의 다리굿, 수용모의 수망굿, 함경도의 망목굿, 제주도의 무혼굿은 모두 저승길을 닦아주어 죽은 이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 천도(薦度)굿이다. 그중에서도 익사자(溺死者)의 넋(魂)을 건져내기 위한 넋건지기굿은 수망(水亡)굿 혹은 넋굿이라 불리며,<sup>2)</sup> 제주에서는 물혼굿 또는 무혼굿으로 불린다. 특히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수몰(水沒) 사고의 빈발을 예견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예부터 무혼굿은 “제주 사람들의 눈물과 한으로 얼룩진 곳”<sup>3)</sup>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본 연구는 제주의 무혼굿을 대상으로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과 ‘번역(translation)’의 개념을 원용하여, 의례에서 애도가 수행되는 과정을 제주 무혼굿과 세월호 무혼굿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NT관점에서 무혼굿의 애도는 개인의 슬픔과 내면의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관계망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의례의 물질성은 애도가 구체적으로 번역·매개되는 핵심 장치로 이해된다.

라투르는 세계를 고정적이고 경계 지워진 틀로 바라보지 않으며, 인간과

- 1) 현용준은 한국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죽음이라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굿의 현장에서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그는 『한국의 굿』 서문에서, “죽은 자를 위한 굿이 결국은 산 자를 위한 굿”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굿은 망자의 죽음을 매개로 삼아, 산 자가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재확인하는 행위로 기능한다. 현용준, 이부영, 김수남, 『한국의 굿-제주도 무혼굿』, 열화당, 1983, 2쪽.
- 2) 김태근, <넋건지기굿>,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2609>
- 3) 현용준, 이부영, 김수남(1983), 위의 책.

비인간 행위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작용하는 연결의 장으로 이해한다.<sup>4)</sup> 세계는 단일한 주체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질적 행위자들이 관계를 맺고 조직되는 다층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ANT 이론은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sup>5)</sup> 여기서 번역(translation)이란, 미셸 세르(Michel Serres)의 논의에서 착안하여, 브뤼노 라투르가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적 도구로 발전시킨 개념이다. 라투르는 번역을 “한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를 다른 행위자의 언어로 치환하기 위한 프레임을 구성하는 행위”<sup>6)7)</sup>라고 설명한다. 번역은 “한 주체가 다른 주체를 자신의 입장에 동참하게 만들기 위한 설득”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질적인 행위자를 연결한다. 따라서 번역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이자, 번역을 이해하는 것이 ANT의 핵심 과제<sup>8)</sup>라고 할 수 있다.

- 
- 4) ANT이론의 해설과 설명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브뤼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엮음, 『인간, 사물, 동맹』, 이음, 2010, 17~328쪽. ; 아네르스 블록, 토르벤 엘고르 엔센, 황장진 역,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 사월의 책, 2009, 18~336쪽.
- 5) 과학 기술 분야에서 지식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며, 중심에서 주변으로 그대로 퍼진다는 관점이 전통적인 확산 이론의 전제이다. 지식은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며, 이때의 과학, 기술 지식은 변하지 않고 전달된다. 하지만 라투르는 과학 기술 지식이 퍼지는 과정에서 형태가 변형되고 재구성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정보는 수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여 상호 간의 협상을 통해 재구성된다. 아네르스 블록, 토르벤 엘고르 엔센, 황장진 역(2009), 앞의 책, 336쪽.
- 6) 브뤼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엮음(2010), 위의 책, 25쪽.
- 7) “라투르는 실험실 내부와 외부의 사실 구축자들이 어떻게 이해관계를 변형하거나 번역함으로써 동맹자들을 자신의 프로젝트에 연결시키는지를 분석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행위자-연결망 이론가들도 동맹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동원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전략과 기술, 텍스트와 물질에 초점을 맞춘다.” 아네르스 블록, 토르벤 엘고르 엔센, 황장진 역(2009), 위의 책, 99쪽.
- 8) 원래 번역은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으로, 두 언어의 차이는 번역 과정에서 항상 새롭게 만들어진다. 즉 번역은 같게 만드는 동시에 차이를 창조해내는 과정이다. ANT에서도 한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를 다른 행위자의 언어로 치환하기 위해 프레임을 만드는 행위가 번역의 핵심이다. 번역은 행위자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이러한 ANT에서 번역의 관점은, 무흔굿과 같이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의례를 분석하는 데 유효하다. 굿의 연행은 일반적으로 단골이 의뢰하고, 무속인이 주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굿이 성공적으로 연행된다면, 인간 행위자 외에도 바다, 제물, 굿상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무흔굿에서 비통함, 원통함, 서글픔과 같은 슬픔의 감정은 굿에서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굿의 물질성)로부터 촉발되며, 애도는 이질적인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번역 이론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고, 관계망 속에서 애도가 실천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논의의 기틀을 마련한다.

무흔굿의 목적은 죽은 자를 위무(慰撫)하고 유족과 공동체가 그 죽음을 애도하는 데 있다. 이때, 굿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질이 동원되며, 이러한 물질은 곧 애도의 물질성과도 통한다. ANT관점에서 굿의 물질성은 단순히 의례를 위한 도구나 배경이 아니라, 굿을 의뢰한 재가집과 심방, 망자와 무속신과 함께 행위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애도의 물질성과 굿의 물질성이라는 두 층위는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

현재 무흔굿에 대한 문헌 자료는 제주 무흔굿(『한국의 굿』 7권<sup>9)</sup>)의 사례가 거의 유일하다. 이 굿은 1981년 3월21일~3월 23일 동안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앞바닷가에서 진행되었다. 외항선을 타고 대서양 버뮤다 해협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범씨를 위해 그의 형이 굿을 의뢰했다.<sup>10)</sup> 이 자료집은 비록 흑백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무흔굿의 절차와 방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과정이며, 명사가 아닌 동사이다. 브루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역(2010), 앞의 책, 24~25쪽.

9) 현용준, 이부영, 김수남(1983), 앞의 책.

10) 현용준, 이부영, 김수남(1983), 앞의 책, 28~31쪽.

한편, 2014년 제주 탐동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무흔굿 영상 자료는<sup>11)</sup>, 현용준이 채록한 자료집의 한계를 보완해준다. 세월호 무흔굿은 김운수, 고순안, 신순덕, 이용옥 등 제주의 대표적인 큰 심방들이 참여하고, 제주 전통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무흔굿은 심방의 사설뿐 아니라 몸짓, 물질, 노래, 공간 등을 통해 정동(affect)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감각적·물질적 요소들은 문헌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세월호 무흔굿 영상 자료는 애도의 수행 과정에서 굿의 물질성과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무흔굿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죽은 넋을 건지는 의례에 대해서는 김현선(2023)의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sup>12)</sup> 이 절차는 육지부의 넋건지기과 구조와 유사하며, 영그릇(혼을 담는 그릇)과 넋대를 사용해 혼을 불러들이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넋건지기 의례의 보편성으로도 상응한다. 제주 무흔굿에서는 영그릇을 바다에 던져 혼을 불러들이는 ‘초혼쌈’, 요왕질

11) 본고에서 인용한 영상 자료는 제주학연구센터 (<http://www.jst.re.kr/main.do>)에서 제공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였으며, 영상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번은 무흔굿의 진행 절차와 무관하며, 게시된 영상 자료 순번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다.

순번	영상 제목
1	세월호무흔굿 요왕맞이 요왕질침
2	세월호무흔굿 액땀이
3	세월호무흔굿 상담속임
4	세월호무흔굿 삼석올림
5	세월호무흔굿 방광침
6	세월호무흔굿 추불공연
7	세월호무흔굿 초감제 자손역가
8	세월호무흔굿 초감제 연유담음
9	세월호무흔굿 초감제 신청계
10	세월호무흔굿 초감제 신도엽
11	세월호무흔굿 초감제 새도립
12	세월호무흔굿 초감제 배포도엽침
13	세월호무흔굿 초감제 날과국섬김
14	세월호무흔굿 초감제 군문열립
15	세월호무흔굿 인트로
16	세월호무흔굿 요왕차사 본풀이

12) 김현선, 「바다의 영혼, 바다의 치유」, 『해양유산』 5, 국립해양박물관, 2023, 49~76쪽.

을 마친 뒤 영개의 속옷을 들고 행하는 ‘이혼쌈’, 시왕맞이 질침 후 적배지를 타고 수행하는 ‘삼혼쌈’이 주요 절차를 이룬다.<sup>13)</sup>

최진아(2025)의 연구<sup>14)</sup>는 군산 지역 강신보살이 주재하는 뉘건지기굿을 대상으로, 무구(巫具)의 구성 양상과 의례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뉘건지기굿은 저승 천도의례라는 점에서 씻기굿과 유사하지만, 제장과 의례 도구에서 차이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했다. 군산지역에서는 속연, 혼백, 신위가 망자의 혼이 깃들어 있는 상징물로 제작되며, 뉘건지기굿에서 무구는 일시적인 신성성을 획득한다. 이를 통해 무구는 성물(聖物)로 인식되거나, 의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최진아의 연구는 뉘건지기굿의 의례구조를 ‘무구’라는 물질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익사자 천도의례가 지닌 지역적 변이, 상징적 다층성, 신령 체계의 구체화 방식을 밝혀내고 있다. 이는 제주 무혼굿을 비롯해 지역별 뉘건지기 의례를 비교·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기반을 제공한다.

선행연구에서 뉘건지기 굿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연구가 있지만 제주 무혼굿만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두 개의 무혼굿 자료(사진자료, 영상자료)에 주목하여 무혼굿에서 애도가 수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승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이다’라는 속담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뜻하는 말로, 한국인의 죽음관을 반영한다. 2014년 4월,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이 속담의 의미가 현실이 되었다.<sup>15)</sup>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죽음은 다수가 미성년 학생이라는

13) 김현선(2023), 위의 논문, 62~63쪽.

14) 최진아, 「뉘건지기굿 무구의 의례적 기능과 상징 - 군산지역 강신보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45,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 2015, 169~207쪽.

15)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탑승자 476명 중 172명이 구조되고 304명이 사망·실종되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접속 일자: 2025. 10. 15.

점, 국가가 구조와 애도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희생된 이들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애도하는 공적 죽음으로 기억되고 있다.<sup>16)</sup>

2장에서는 먼저 무훈굿에서 행위자들의 구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이때 의례에 사용되는 물질적 요소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닌 행위자로 작동하며, 애도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작동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정동, 인식, 새김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2장과 3장은 애도가 네트워크와 물질성을 통해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행된 애도가 어떠한 사회적 효과와 의의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 2. 무훈굿의 행위자 구성과 연결망(network)

라투르의 ANT이론은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지는 신유물론의 사유 방식을 드러내며 비인간(nonhuman)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한다.<sup>17)</sup> ANT의 관점에서 세계는 언제나 인간과 물질적 객체로 구성되는 하이브리드 세계로 존재한다.<sup>18)</sup> 이질적인 요소들이 동등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존재론적 구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ANT의 관심사이다.

한편, 라투르는 연결망의 의미가 너무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이한 맥락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sup>19)</sup> 라투르에게

16)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국가 애도 기간은 선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 분향소가 자발적으로 설치되고, 예고되어있던 지역 행사 및 축제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사회 전반에는 자연스럽게 공적 애도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17) 브루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역음(2010), 앞의 책, 19~34쪽.

18) 아네르스 블록, 토르벤 엘고르 옌센, 황장진 역(2009), 앞의 책, 20~21쪽.

연결망 개념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리즘 개념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선형적 인간관계나 위계적 구조가 아닌 비위계적이고 다중적인 접속의 과정으로 이해된다.<sup>20)</sup> 이러한 ANT의 관점에서 무속 의례의 ‘연결’은 인간-신의 접속<sup>21)</sup>을 넘어서, 복수의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굿의 형식을 역동적으로 파악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테면, 인간과 신의 행위에만 주목했던 단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굿의 다양한 물질성-제물, 굿칭, 음악, 무구, 무대-과 다양한 행위자들이 맺는 네트워크를 상정할 수 있다. 무혼굿에서 호명하는 신령과 위무의 대상이 되는 사령(死靈)의 존재는, 본래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는 의례의 네트워크의 속에서만 구성될 수 있다. 의례의 성공 여부는 이 연결망의 구성과 작동에 달려 있다.

무혼굿의 형식은 아무리 간소하게 하더라도 신을 청해 모셔서 사연을 비는 초감제와 송신(送神)의 제차인 도진을 필수적으로 행한다.<sup>22)</sup> 특히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신을 위한 용왕맞이와 저승 차지한 시왕을 위해서 마련하는 시왕맞이는 무혼굿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제차이다. 다음은 무혼굿의 전체적인 구조와 핵심적인 제차를 요약한 것이다.

19) 라투르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인터넷 시대가 만든 ‘세계적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개념이라든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사회학적 저작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개념과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아네르스 블록, 토르벤 엘고르 옌센, 황장진 역(2009), 앞의 책, 260쪽.

20) 라투르는 연결망이 이것과 저것의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리즘과 유사한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아네르스 블록, 토르벤 엘고르 옌센, 황장진 역(2009), 앞의 책, 41쪽.

21) 무속의례에서 인간과 신의 연결은 의례를 구성하는 기본 뼈대이다. 인간과 신이 연결되었다는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의례가 행해질 수 없다.

22) 무혼굿의 전체적인 진행 순서와 각 제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용준의 『제주도 무혼굿』(한국의 굿 7, 민속원, 2001, 78~93쪽)에서 요약·발췌 하였음.

1. **초감제**: 1만8천신이라는 무속신을 칭해 모셔서 소원을 비는 제차  
배포도 업침-날과 국 섬김- 집안 연유 닦음-군문열림-산반아 분부사뵐-새  
드림-오리정
2. **추물공연**: 좌정시켜 놓은 신에게 차려놓은 음식을 접수시게 노래하는  
제차
3. **용왕맞이**: 용왕과 거북사자들이 오가는 길을 닦는 제차  
초감제-요왕질침-이혼췌-요왕문 열림
4. **시왕맞이**: 명부(冥府)의 시왕(十王)들을 맞이하여 기원하는 제차  
초감제-방광침-추물공연-분부사뵐-체스본풀이-액막이-나까도전침-질침  
(질치기)
5. **도진**: 곳당에 모신 신을 돌려보내는 제차
6. **영가루침**: 사령이 저승에 가서 무엇으로 환생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제차

다음은 제주학연구원(제주학 아카이브)<sup>23)</sup>에서 제공하는 세월호 무훈  
곳의 영상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영상마다 의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을 기록하고 있어, 제주의 전통 무속 의례를 이해하는 데 귀한 자료적 가치  
를 지닌다.

〈제주 세월호 무훈곳 자료 소개〉

1. 삼석울림	삼석울림은 곳을 하기에 앞서 신에게 곳의 시작을 고하는 뜻으로 벌인다. 북, 설쇠, 테양을 가지고 낮은 장단-중간 장단- 빠른 장단을 차례로 치고, 다시 낮은 장단으로 마무리한다. 장단은 빠르기에 따라 늦인석, 중판, 좃인석이라고 한다.
2. 초감제	
(1)신청례	신청례는 신이 오는 길로 나아가 안으로 모시는 순서이다. 오리정, 오리정 신청례라고도 한다. 쌀을 흘뿌리면서 청하는 것이 특징이다. 팔만금세진침, 정태우가 따른다. 팔만금세진침은 곳을 마칠 때까지 신을 붙잡아두기 위하여 강력한 진법을 치는 뜻으로 벌인다. 정태우는 안으로 모신 신들로 하여금 적절한 자리를 찾아 앉게 하는 뜻으로 벌인다.

23) 제주학연구원, (<http://www.jst.re.kr/main.do>)

(2)날과국섬김	<b>날과국섬김</b> 은 굿하는 날짜와 굿하는 장소를 신에게 고하는 순서이다. 굿하는 날짜를 간단히 언급하고, 굿하는 장소를 길게 풀이한다. 날섬김과 국섬김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섬김은 세계각국, 동양삼국, 대한민국으로 시작하여 제주도로 들어가고, 굿하는 장소에 이른다. 주요 행정구역, 역사를 함께 풀이한다.
(3)군문열림	<b>군문열림</b> 은 신의 세례로 통하는 곳의 문을 여는 순서이다. 군문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군문 지기에게 인정을 걸고, 군문을 연 다음, 군문 열린 상태를 알아보고, 신의 뜻을 확인하여, 기주에게 전달한다. 군문돌아봄-군문에 인정-군문열림-군문 열린 그릇 알아봄-산받음-주잔님김-분부사뎌 등 여러 소재차로 이루어진다.
(4)새도림	<b>새도림</b> 은 제정의 부정을 정화하는 순서이다. 이 대목만큼은 수심방(主巫)대신 소미(小巫)가 나서서 진행한다. 먼저 정화수로 제청을 씻어낸 다음 기주들의 몸에 달라붙은 나쁜 기운인 새를 쫓아낸다. 이때 사(邪)와 소리가 비슷하다는 것을 빌미로 온갖 새(鳥)를 쫓아내는 사설로 노래한다.
3. 추물공연	<b>추물공연</b> 은 안으로 청한 신들에게 준비한 정성과 제물 등을 받아달라고 청하는 순서이다. 심방이 장구를 받아 앉아 스스로 치면서 사설을 풀어간다.
4. 방광침	<b>방광침</b> 은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순서이다. 사설을 풀어가다가 대목 대목마다 데양(징)을 치면서 진행한다.
5. 요왕맞이	<b>요왕맞이</b> 는 물을 다스리는 용왕신을 청하여 기원하는 순서이다. 요왕맞이도 다시 초감제를 한 뒤에 벌이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굿에서는 앞서의 초감제와 요왕맞이 초감제를 함께 하였다.
(1) 요왕질침	<b>요왕질침</b> 은 용왕이 오는 길을 치우고 닦는 순서이다. 그 길은 또한 바다에서 죽은 영혼이 오는 길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놓고 갖은 방법으로 길을 치우고 닦는 과정을 연출한다. 무혼굿에서는 특히 바다로 가서 영혼의 넋을 건져다가 시신으로 꾸며놓고 상여로 매어들이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2) 요왕차사 본풀이	<b>요왕차사본풀이</b> 는 물에서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요왕차사의 내력을 풀이하는 순서이다. 본풀이의 내용은 일반적인 차사본풀이와 같다. 심방은 앉아서 스스로 장구를 치면서 사설을 풀어간다.
6. 상당숙임	<b>상당숙임</b> 은 굿의 주요 대상이 되는 신들에 대한 의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술을 권하고 기원을 덧붙이는 순서이다.

무혼굿에서 인간 행위자는 굿의 진행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소미(小巫)와 악공, 심방을 비롯하여, 굿에 참여하는 유족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의례의 현장을 기록하는 촬영자, 기타 주변에서 이를 관람하거나 증언하는 이들 모두가 해당된다. 특별히 의례의 주체로 지속적으로 호출되고 상징적으로 재현되는 망자와 신령 또한 인간 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다.<sup>24)</sup>

망자와 신령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인간 행위자와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이 생물학적 실존 여부 혹은 인간의 형상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인간/비인간 행위자를 구분하는 것이 내부적인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망 속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통해 파악해야한다는 점에서 망자와 신령을 인간 행위자로 규정할 수 있다.

곳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물질성은 신의 존재를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자들과 연합하여 의례라는 연결망을 드러낸다. 무훈곳에 참여하는 무속신은 심방의 몸을 매개로 곳에서 인간의 부름에 응답하는 능동적 존재이며, 다른 인간 행위자들과 함께 의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이다. 실제로 신을 청해 모시는 초감제나, 좌정한 신에게 차려 놓은 음식을 대접하는 추물공연과 같은 제차에서 신은 인간 행위자처럼 인식되고 대우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용왕맞이와 시왕맞이에서 불러내는 용왕신과 차사의 존재는 의례에서 다른 인간 행위자와 같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초월적인 존재가 무엇을 행위하는가는 비가시적이기는 하지만, 심방의 사설과 행위, 그리고 곳의 물질성으로 인해서 가시화된다. 이를테면 초감제에서 곳을 하는 사연을 아뢰고 나면, 신들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군문열림을 행한다. 이때, 심방은 문을 여는 장면을 자신의 몸과 춤사위(도랑춤)로 표현한다. 심방은 ‘초군문 이군문 삼셋 도군문을 열자’는 사설을 노래하면서, 이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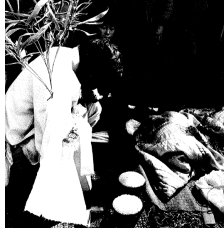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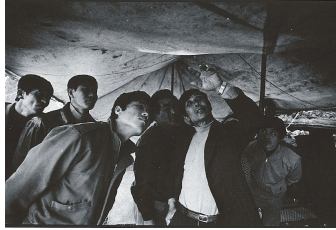
24)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은 과학과 기술의 현장 분석에서 출발하며, 여기서 비인간 행위자란 그래프, 설계도, 표본, 표준, 기관, 병균 등과 같이 인간 외의 인공물이나 비생명적 요소들까지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능동적 요소로 간주한다. (홍성욱(2018), 위의 책, 7쪽).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김동규는 무속에서 신적 존재 역시 인간의 상상력과 수행을 통해 구성된 인공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무속신은 ANT의 틀 안에서 비인간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김동규, 「현대 한국무속의 비인간 길들이기」, 『종교문화비평』 43권, 종교문화비평학회, 2023, 17~43쪽.

는 다른 빠른 템포로 요란하게 춤을 춘다. 심방의 춤을 통해서 신역(神域)의 문이 열리고 신이 제청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5)</sup>

군문이 열림으로써 신령이 의례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은, 인간과 신의 연결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때, 신령의 존재는 심방의 수행적 행위-노래와 몸짓-를 통해서 다른 인간 행위자와 같은 공간에 있음을 드러낸다. 신령은 인간 행위자의 네트워크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고 작용하는 것이다. 신이 굿이 열리는 장소에 강림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요청(사설)과 몸(춤), 그리고 의례 공간이라는 복합적 매개를 통해 실현된다. 이처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은 네트워크 속에서 동시적으로 조율된다.

무흔굿에서 위무(慰撫)의 대상으로 모셔지는 망자 역시 감각적으로 지각되고 호출되어, 다른 인간 행위자들과 정서적 관계를 맺는 인간 행위자로 기능한다. 망자가 죽기 전에는 인간으로서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있던 존재였다. 무흔굿은 망자의 넋을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으로 간주하고, 굿의 물질성을 통해 감각적으로 재현한다. 이를테면, 신위, 영그릇, 쌀가루 점과 같은 물질성은 망자를 단순히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굿에서 망자의 넋이 수행하는 실천적 역할을 보여준다. 이러한 물질성은 망자가 인간 행위자로서 능동적으로 의례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료1>은 망자의 사진이 놓인 신위(神位)라고 하는 비인간 행위자와의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신위는 망자의 부재를 감각적으로 인지가능하게 만드는 비인간 행위자이다. 이 신위는 굿이 진행되는 동안 망자의 존재를 환기하여 다른 행위자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25) 현용준, 이부영, 김수남(1983), 앞의 책, 81쪽.

〈자료1〉<sup>26)</sup> 망자의 신위〈자료2〉<sup>27)</sup> 영그릇〈자료3〉<sup>28)</sup>

〈자료2〉는 영그릇을 보고, 심방이 시체의 상태를 점치는 장면이다. ‘영(靈)그릇’은 밥공기에 쌀을 가득 담고, 그 위를 무명천으로 감싸 만든 것이다. 영그릇은 사령(死靈)의 뉘를 건지기 위해 바닷물에 던져 두었다가 ‘요왕맛이’ 의례에서 건져 올린다. 이때 심방은 그릇 속 쌀의 형상에 나타난 기호를 해석하여, 망자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친다.<sup>29)</sup> 쌀에 나타난 형상이나 빗에 걸린 머리카락을 해석함으로써, 망자의 상태를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신을 감각적으로 되살리는 과정이다. 영그릇은 초월적 존재와 소통을 매개하고, 보이지 않는 죽음을 물질로 드러내는 기호적 장치이자 비인간 행위자로 기능한다.

〈자료 3〉은 무훈군의 마지막 절차인 ‘영가루침’을 하는 장면이다. 천막 위에 쌀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나타나는 형상을 해석하여 망자가 죽은 뒤 무엇으로 환생했는가를 점친다. 심방은 쌀가루 위에 떠오른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를 통해 망자의 상태를 읽어낸다. 망자의 영혼은 쌀가루라는

26) 현용준, 이부영, 김수남(1983), 앞의 책, 75쪽.

27) 현용준, 이부영, 김수남(1983), 앞의 책, 36쪽

28) 현용준, 이부영, 김수남(1983), 앞의 책, 63쪽.

29) 영그릇의 뚜껑을 열어보면, 쌀 위에 특정한 형상이 나타나거나, 머리빗에 머리카락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심방은 이러한 징후들과 함께, 무구(巫具)인 천문(天門) 두 개를 물그릇에 던져 시신의 행방을 점치고,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이를 통해 심방은 시신의 위치나 상태에 대해 유족에게 알린다.

물질을 통해 감각적으로 재현되며, 굿의 네트워크 안에서 해석되고 소통되는 하나의 행위자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망자의 낮은 굿의 다양한 행위자와 네트워크로 생성된 존재이자, 추상적인 가공물의 형태가 아닌 실체하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한편, 무훈굿의 네트워크 안에서 인간 행위자들은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심방은 인간, 비인간 행위자 사이를 잇는 매개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ANT는 행위자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때 중간자(intermediary)와 매개자(mediator)를 구분하여 사용한다<sup>30)</sup>. 이 둘은 모두 중재에 관여하지만, 네트워크 안에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느냐, 혹은 ‘변형’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 중간자는 자신이 받은 것을 의미의 변형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반면, 매개자는 전달 과정에서 의미와 내용을 변형한다. 심방이 신(혹은 망자)의 말을 대신 전할 때, 이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기보다 감정과 해석이 더해져 의미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심방은 매개자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심방의 역할을 보조하는 소미와 악공들은 굿의 물리적·정서적 리듬을 조율하는 조력자이다. 소미는 제물 준비 및 의례 도구의 전달, 심방의 의복이나 장신구 정비 등 의례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준비를 담당한다. 악공은 장단을 연주함으로써 굿의 분위기를 복돋우고, 심방이 연행하는 사설의 호흡과 흐름을 조율하며, 유족과 참여자들의 정서적 몰입을 유도한다. 이들은 심방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굿의 진행을 도우며, 굿이 유기적으로 연행되도록 한다. 이처럼 인간 행위자의 역할은 의례의 완결성과 정서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무훈굿에 참여하는 인간 행위자들은 각기 다른 위치와 기능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네트워크 안에서 생성되는 애도의 양상과 효과 역시 상이하게

30) 브뤼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역(2024), 앞의 책, 23~24쪽.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들 각각의 네트워크는 모두 애도의 실천이라는 의례의 목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ANT에서 이들은 고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재구성하며 곳의 의미와 효과를 생성하는 가변적이고 관계적인 행위자들이다.

한편, 무혼곳의 네트워크에는 인간 행위자뿐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의 개입도 주목을 요한다. 먼저, 무혼곳에서 감각적으로 애도를 유도하는 매개자로 곳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로는 무구(巫具)가 대표적이다.<sup>31)</sup> 흔히 사용되는 무구로는 무악기(巫樂器)-북, 설채, 대양, 장귀(장구)-, 방울, 부채, 오방신장기(五方神將旗) 등이 있다. 무구들은 단순히 신을 호출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례 참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동을 자극하며, 곳의 시간성과 공간성, 관계망을 감각적으로 구성하는 물질적 장치이다. 이러한 무구는 인간 행위자의 수행과 긴밀히 얽히며, 신과 인간, 망자와 산 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감각적 차원에서 매개하는 비인간 행위자이다.

다음으로, 곳청, 제단, 바다, 광장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이러한 공간 또한 비인간 행위자로 기능한다. 곳청은 일상의 공간과 구별되는 신성화된 장소로, 초월적 존재와 인간의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이다. 바다는 직접적으로 망자의 죽음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자, 용왕이 출현하는 신화적 공간이다. 특히 세월호 무혼곳이 행해진 ‘광장’은 희생된 자들의 죽음을 공적 죽음으로 번역하여 공동체의 애도가 표출되는 공간이다.

31) 선행연구에서는 무구를 곳의 수행을 돕는 보조적 도구로 한정했다면, 본 연구는 무구를 주체성을 지닌 비인간 행위자로 규정한다. 다시말해, 무구는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혹은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매개하는 수단이 아니라, 곳의 네트워크 속에서 능동적으로 애도를 수행하는 행위자이다.



(자료4)<sup>32)</sup> 무악기



(자료5)<sup>33)</sup> 광장, 굿청,



(자료6)<sup>34)</sup> 무혼굿 굿당 전경

광장의 의미는 여러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있기 전까지는 사전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광장에서 연결망이 어떻게 이뤄졌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새롭게 만들어진다. 무혼굿에 참여한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 애도가 수행될때라야, 광장은 비로소 공적 애도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의례를 기록하는 장치들-사진, 촬영장비, 음향, 기록물-은 굿의 기억을 보존하는 비인간 행위자이다. 이들은 의례의 현장을 기억 가능한 형식으로 재구성하며, 기억의 매개자로 작용한다. 망자의 넋을 건져서 저승길을 마련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애도의 수행은 이러한 기록 장치를 통해 반복과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행위자들은 이러한 기술적인 장치를 통해 서로 연결되며, 기록물은 이 네트워크의 물질적 흔적으로 기능한다. 특히 디지털 기록물은 유튜브나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와 같은 웹사이트에 게시됨으로써,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무혼굿이 개인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기억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제시한다.

지금까지 무혼굿에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복합적인 연결망으로 얽혀있음을 확인하였다. 무혼굿에서 애도의 실천은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성·재구성되며, 새로운 애도 주체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로써 애도는 정지된 감정 상태가 아니라, 네트워크 안에서

32) 제주학연구센터 (<http://www.jst.re.kr/main.do>) 접속 일자: 2025. 8. 12.

33) 제주학연구센터 (<http://www.jst.re.kr/main.do>) 접속 일자: 2025. 8. 12.

34) 현용준, 이부영, 김수남(1983), 앞의 책, 83쪽.

전개되는 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무혼곳 네트워크의 효과와 애도

#### 3.1 정동의 효과로서의 애도

세월호 유족을 위한 국가적 심리 지원은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8개월 동안 유족의 심리 지원 서비스 경험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유가족의 정서적 회복을 촉진했던 핵심 요인은 상담 실무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락”, 그리고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반응, 경청”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sup>35)</sup> 이는 심리적인 지지가 애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서적 토대가 됨을 시사한다.

무혼곳의 연결망을 통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망자를 보내는 유족의 슬픔이 새로운 힘으로 다시 환기되는 정동적 작용이다.

정동은 고립된 개인의 감정이나 의식으로 포섭하거나 환원할 수 없으며, 개체를 초과해 있다. 생명은 열려 있기 때문에 외부의 난입을 피할 수 없으며 외부와의 관계로부터 형성된다. …(중략)… 정동은 몸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효과, 가상적 이행, 형태 없는 자태이기 때문에 관계적이며, 관계 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sup>36)</sup>

브라이언 마수미(Brian Massumi)의 정동 개념에 따르면, 정동은 개인

35) 이나빈 외, 「재난심리지원 실무자를 통해 본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애도반응과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산업』 45(3),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17, 5~34쪽.

36)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정동정치』, 갈무리, 2018, 316~317쪽.

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감정과는 구분되며, 언제나 “몸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효과이며, 관계 속에서만” 발생한다.<sup>37)</sup> 앞서 살펴 본 무혼굿의 연결망은 정동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며, 이질적 행위자들 사이에서 불일치와 충돌이 빚어지며 정동이 발생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무혼굿은 서로 다른 성격과 속성을 지닌 행위자들이 관계적으로 얽히는 과정에서 강력한 정동의 효과를 불러온다. 예컨대, 슬픔을 토로하는 심방의 사설과 신명나게 울려 퍼지는 무악기의 소리가 맞부딪히는 순간, 이러한 감각의 대비에서 긴장이 고조되며 강력한 정동을 형성한다.

“여기 실종된 열 네 사람의 혼을 여, 건져서 보니까 전부다 찾지를 못하겠어요. 여기에 거 손을 올려서 보니까 전부 다 찾을 못하겠어요. 예. 전부 다 못 찾아요. 응. 거기 요양에 거, 태운 사람은. 백 물레왓, 천 물레왓 때. 그 태운 듯 영혼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잠겨있고, 태운 사람은. 다 끌어 올라와 조금 멀리. 중도 바다에서 좀 멀리. 멀리 좀비추겠어. 그러나 못찾았다 못찾아”

위의 인용문은 김윤수 심방이 요왕맞이에서 세월호 실종자의 위치를 점친 후에, 그 내용을 관중에게 알리는 대목이다. 심방은 아직 실종된 열네 명의 영혼을 찾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심방의 발화는 내용상 절망적이지만, 그는 담담히 이를 전한 뒤 췌떡움을 이어간다. 췌떡움은 그릇에 물을 담고 거기에 천문을 던져 시신이 있는 곳을 알아보는 제차이다. 빠른 템포의 장단 소리와 함께 심방의 몸짓도 점차 고조된다. 그는 마치 신명에 이끌리듯 덩실거리며 회전하고, “혼을 다 찾지를 못해”라는 짧은 언급 후 곧바로 다음 제차인 열려맞음으로 넘어간다.

이 장면에서 비통한 발화와 신명나는 무악, 느리고 무거운 정서와 빠르고 경쾌한 리듬이 병치되면서, 상반된 감각 요소들이 맞부딪히는 긴장감을

37)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2018), 위의 책, 317쪽.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질적 감각의 얽힘은 참여자와 관중이 삶과 죽음, 상실과 재연결의 감각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며, 의례의 정동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마수미의 『정동정치』는 정동적 차원의 경험과 오늘날 희망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sup>38)</sup> 우리는 항상 열린 문턱, 곧 현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대한 유토피아적 목표보다 다음 단계의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다. 정동은 이처럼 현재의 삶에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sup>39)</sup>, 마수미에게 정동은 곧 희망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을 품은 상태로 이해된다.

마수미의 논의에서 ‘열린 문턱’은 시공간적 경계가 고정된 장벽이 아니라 변화와 이동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관점은 생사(生死)와 같은 근본적 경계 인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무혼굿에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언제나 변화와 이동을 허용하는 잠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과정적인 통로’로 이해된다. 이러한 열린 경계는 의례에서 생성되는 정동을 통해 활성화된다. 정동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열려 있는 과정으로 만들며, 망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가능성의 상태야말로 마수미가 말하는 희망의 잠재성이며, 무혼굿에서의 애도는 바로 이 잠재성을 실천으로 전환시키는 매개가 된다.

한편, 무혼굿이 갖는 애도의 효과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준다거나, 유족의 일상적 삶을 즉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다. 굿을 통한 치유와 회복은 어디까지나 상징적 치유라는 점에서 실존적인 회복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렵다. 유족이 느끼는 상실과 비통

38) 마수미는 매리 주나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정동적 차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오늘날 희망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희망을 단순히 낙관이나 비관이라는 이분법적인 틀 안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러한 틀을 벗어나 희망을 바라볼 때, 희망은 미래가 아닌 현재 속에서 포착될 수 있다.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2018), 앞의 책, 22~25쪽.

39)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2018), 앞의 책, 315~316쪽.

의 감각은 굿에서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나, 언젠가는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을 지닌다. 굿의 현장성은 강력한 애도의 효과를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굿이 지닌 일회성의 특징으로 인해, 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낸다.

그럼에도 무흔굿에서 애도의 효과로써 정동은 유족과 공동체의 정서와 인식에 변화를 일으키며, 미수미가 말한 ‘현재 속 잠재성’을 활성화한다. 의례에서 정동은 사물을 새롭게 하는 힘으로 작동<sup>40)</sup>하며, 단혀 있던 관계와 감정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관계적 이행을 가능하게 만든다.

다음의 인용문은 현용준이 관찰한 기록으로, 망자의 어머니가 굿의 진행과 더불어 점차 기운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사례는 무흔굿의 애도가 정동의 흐름 속에서 희망의 잠재성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포착하고 있다.

심방들 일행이 도착했을 때 죽은이의 가족, 친척들은 굿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죽은이의 노모가 기동도 못한 채 거의 인사불성 상태로 있었다. 그러나 굿이 진행되는 동안 차츰 기운을 차려 갔으며, 굿이 끝날 무렵에는 “내가 이렇게 슬퍼만 하면 무얼한담, 남은 자식과 손자를 생각하며 살아야지” 말하며 일어났다.<sup>41)</sup>

인용문에서 현용준은 무흔굿이 정서적 회복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관찰하며, 굿이 갖는 기능에 대해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남은 자식과 손자를 생각하며 살아야지”라는 어머니의 발화는 무흔굿에서 생성된 정동의 흐름이 절망과 비통에서 새로운 삶의 의지로 전환되는 순간을

40) 미수미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는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세계는 언제나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이 잠재적인 힘(a sense of potential)을 갖는다고 말한다. 브라이언 미수미, 조성훈 역(2018), 앞의 책, 316쪽.

41) 현용준, 이부영, 김수남(1983), 앞의 책, 68쪽.

보여준다.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현실에서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연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식과 손자와의 관계 속에서 죽은 자식은 어머니와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곳의 진행 과정에서 어머니의 말과 행동의 변화는 무흔곳이 개인의 슬픔을 정동의 힘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동의 효과로서 애도는 절망과 낙심, 비통과 슬픔을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이다.

### 3.2 불완전한 죽음, 지연된 애도의 회복

일반적으로 죽음은 의학적·사회적 기준에 따라 자연사, 외인사, 재해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중 수몰 사고로 인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죽음의 당사자는 물론 지인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다 준다. 특히 바다의 광활함과 바닷물의 유동성은 물에 빠진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바다에서의 죽음이 더욱 한스러운 까닭은 이러한 바다의 물질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을 위해 마련되는 무흔곳은 깊은 슬픔과 한(恨)의 정서가 서려있기 마련이다.

시신이 존재하지 않은 죽음, 혹은 신원 파악이 안될 만큼 시체가 훼손된 죽음은 애도하기 어려운 죽음에 해당한다. 이는 죽음이 단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를 통해 감각되는 구체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심정지로 대표되는 ‘움직이지 않는 몸’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음을 드러내며, 우리는 이러한 감각적 인식을 통해 죽음을 인식하고 실감한다. 따라서 시신이 온전하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는 감각적으로 죽음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시체 없는 죽음은 유족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유보시킨다.

이는 애도의 성립 조건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 수용하기 어려운 죽음, 이는 곧 죽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애도가 지연되거나 아예 애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실례로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장례는 사고 발생

1314일만에 마지막으로 치러졌다.<sup>42)</sup> 유족들은 기자회견에서 “뺏조각 하나라도 찾아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시신 없는 죽음은 곧 애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무훈굿의 다양한 네트워크는 불완전한 망자의 죽음에 애도 가능한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애도의 가능성을 회복시킨다. 망자의 넋을 건져 올리고 시신의 행방을 점치는 일련의 과정은 그 죽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망자와 살아 있는 자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재구성한다. 이로써, 무훈굿의 네트워크는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애도할 수 없었던 망자의 죽음을 애도 가능하고 천도 가능한 죽음으로 재인식하게 만든다.



〈자료7〉<sup>43)</sup>



〈자료8〉<sup>44)</sup>

요왕맞이 제차에 포함된 ‘요왕질침’은 용왕이 도래할 길이자 망자의 귀환 경로를 정확히 하고 준비하는 의례이다. 길을 닦는 행위는 신을 제청으로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상징적 과정을 보여준다. <자료7>은 요왕맞이 제차에서 망자의 넋을 건진 뒤 심방이 긴 무명천을 어깨에 둘러메고 행진하는 모습으로, 전통적인 상여 행렬을 재연하고

42) 한연희, <세월호 마지막 장례식 “뺏조각이라도 찾고 싶었다”> 데일리 굿 뉴스 더파 (<https://www.goodnews1.com>) 접속 일자: 2025. 7. 31.

43) 제주학연구센터 (<http://www.jst.re.kr/main.do>) 접속일자: 2025. 8. 10.

44) 제주학연구센터 (<http://www.jst.re.kr/main.do>) 접속일자: 2025. 8. 10.

있다. 영상 자료를 보면, 심방을 선두로 하고, 뒤를 따라 유족과 일반인들이 행렬에 동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여 행렬은 공동체가 수행함으로써 망자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공적 애도의 수행으로 기능한다.

<자료8>은 용왕이 오는 길을 닦고 난 후, 문을 열기위해 ‘열려맞음’을 하는 장면이다. 심방이 사설을 노래하며, 신칼로 문이 열리는지를 점친다. 열려준다는 점괘가 나오면, 요왕문의 맺가지를 하나씩 차례로 뽑아 나간다.<sup>45)</sup> 이러한 사례는 실체가 없는 초월적 존재(요왕, 망자)를 감각적으로 되살려내는 효과를 갖는다.

상여 메기 행위와 집단적인 행렬은 실제 장례 형식과 유사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실존자를 천도 가능한 죽음의 상태로 전환함으로써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유족들에게 장례 의식을 대신한다. 결국, 유족은 “망자가 저승으로 잘 갔다”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 정상적인 애도를 수행하기에 이른다.

무혼곳이 진행됨에 따라 망자의 존재는 실존자에서 천도된 영혼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화는 애도 가능한 조건을 구성한다. 망자는 곳의 네트워크 속에서 견여지고, 소환되며, 천도되는 존재로 재구성되며, 유족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결과적으로 무혼곳의 네트워크는 애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부터 애도 가능한 상태로 죽음을 새롭게 다시 쓰는 효과를 불러온다.

### 3.3. 미디어에 새겨진 애도

특정한 기술에 의해 애도가 반복될 수 있을 때, 이를 새김(inscriptions)의 행위로 읽을 수 있다. 카메라, 사진, 마이크, 음향 시설, 저장 파일 등 기술적인 비인간 행위자들은 무혼곳의 현장을 기록하고 저장한다. 이러한

45) 현용준, 이부영, 김수남(1983), 앞의 책, 85쪽.

행위자 네트워크는 영상과 사진이라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애도를 새김한다. 의례의 사진과 영상을 매개로 애도가 물리적 흔적으로 남겨질 때, 애도는 순간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미디어는 새김을 발생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비인간 행위자의 네트워크는 애도의 경험과 개념을 저장하고, 쓰이도록 한다.<sup>46)</sup>

캐런 바라드(Karen Barad)의 “내부작용성(intra-action)” 개념은 물질화와 새김의 문제가 미디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보여준다. 새김은 무언가를 식별 가능하게 만드는 “흔적”이다. 바라드는 내부작용성을 물질적인 것과 담론적인 것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sup>47)</sup> 내부작용성은 “사물들을 합치하거나 분리”시키며, 이 과정은 외부로부터 발생하거나 물질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서부터 그 물질 안에 쓰이거나 새겨진다.” 미디어는 “이런 과정이 발생하는 하나의 방식”이다.<sup>48)</sup> 바라드의 관점에서 미디어는 무엇을 재현하고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차이를 구성하고 조직하는데 일조한다.

이러한 내부작용적 실천에 따라, 무흔굿에서 기술적인 비인간 행위자의 네트워크는 애도를 미디어에 새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편집 기술, 영상 재생 플랫폼 등의 기술적 비인간 행위자들은 애도를 포착하고 저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물질화하여 감각 가능한 실체로 만든다. 새김은 무흔굿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삭제하는가를 결정함으로써, 애도를 구성한다. 이는 무흔굿에서 애도가 기술을 통해 ‘저장’될 뿐만 아니라, ‘형성’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46) “새김이 지칭하는 바는 각 미디어의 물질적 특성, 그리고 그 물질성이 어떻게 파는 행위를 가능케 하여 무언가가 쓰이고, 조직화되고, 조직되며, 나중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랜트 볼머, 김수철 역, 『신유물론과 유물론』, 세창출판사, 2024, 112~113쪽.

47) 그랜트 볼머, 김수철 역(2024), 위의 책, 124쪽.

48) 그랜트 볼머, 김수철 역(2024), 위의 책, 125쪽.

1985년 김수남이 촬영한 무혼굿 사진과 2014년 세월호 무혼굿 영상 자료는 편집자라는 행위자에 의해 걸러지고 선택된 결과물이다. 두 자료는 기본적으로 사진과 영상이라는 매체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무혼굿을 재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갖는다. 사진은 정지된 이미지로 특정 순간을 포착함으로써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용이하게 만드는 반면, 영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심방의 동작, 목소리, 표정 변화 등 의례의 수행 과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기록 방식과 매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는 심방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그 ‘표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사례는 애도의 수행이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 새김되는가를 보여준다.



〈자료9〉<sup>49)</sup>

“설운 어평아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수 광. 어머님아 어머님아 구름질(길)로 바람 질로 고향산천 온 줄 모릅니까.(중략) 어머님아 어머님아 스물일곱 설운 나이에 남들은 부모 공경 현다드니 이렇게 부모 마음에 불지를 수도 없수다.”

-안사인 심방의 사설 중-



〈자료10〉<sup>50)</sup>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배가 침몰되어 어찌... 어어어어어어... (울음)  
진도 팽목항에... 그 물에 끓여서 열 손가락 들고는, ‘아고 용왕님아, 우리 아들 살려줍소, 우리 딸 살려줍소.’ 불러본들 대답도 없고, 외쳐봐도 대답도 없고...  
이제야... 여러 날 걸려 갈 추위에... 바닥 물이... 아우욱... 아... 으... (호느낌)  
아버님, 어머님... 희생자들...”

-김운수 심방의 사설 중-

49) 현용준, 이부영, 김수남(1983), 앞의 책.

50) 이 장면은 연속적인 영상의 움직임을 필자가 일시 정지하여 캡처한 것이다. <세월호 무혼굿 초감제 군문열림> 제주학연구센터 (<http://www.jst.re.kr/main.do>) 접속 일자: 2025. 8. 2.

<자료9>는 1985년 무혼굿에서 안사인 심방의 표정을 포착한 사진이다. 심방은 어머니에게 망자가 전하는 말을 대신 전하면서 먼저 떠나는 자신을 불효자식이라고 칭한다. 클로즈업한 심방의 표정-찌그린 눈살, 울먹이는 입매, 입가에 깊게 패인 주름-에서 죽은 이의 비통함을 간접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흑백 사진 특유의 명암 대비가 심방의 얼굴 표정을 더욱 부각시키며 감정 표출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자료10>은 2014년 세월호 무혼굿에서 김윤수 심방이 눈물을 닦으며 사설을 읊고 있는 대목을 캡처한 장면이다. 여기서는 심방의 표정과 함께 딸 사이사이 흘러나오는 흐느낌, 호흡의 끊김, 목소리의 떨림과 같이 심방의 음성이 미디어에 새겨진다. 이때 카메라는 정면에서 그의 표정과 울음 소리를 전달한다. 심방의 목소리가 가장 애절하게 표출되는 장면은 실종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목이다. “아고 용왕님아, 우리 아들 살려주소, 우리 딸 살려주소..”하고 외칠 때에는 심방의 울음 소리가 절정에 이른다.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는 심방의 표정은 카메라에 포착되고, 편집을 통해 강조되며, 플랫폼에 게시되면서 무혼굿의 애도를 미디어에 새기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는 단순한 기록 장치를 넘어, 촬영자의 시선, 편집자의 판단, 시청자의 감정적 반응이 중첩되는 네트워크로 작동한다. 새김의 효과는 무혼굿에서 어떠한 의미가 확장되고, 무엇이 배제되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클로즈업이라는 카메라 기법은 애도를 새기는 기술로서 비인간 행위자로 기능하며, 애도를 의도적으로 가시화하고 각인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즉, 심방 표정을 강조함으로써 애도를 수행하는 자의 비통함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시각·청각적으로 새김한다.

#### 4. 결론: 애도의 윤리

무훈곳은 망자를 위무(慰撫)하고 유족을 위로하고자 애도를 목적으로 하는 의례이다. ANT에서 무훈곳의 애도는 어떤 행위의 결과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되는 상호작용의 과정, 즉, 관계적인 활동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무훈곳의 애도는 인간과 비인간의 이중적 관계망을 통해 구성되며 물질을 통해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무훈곳의 네트워크가 어떠한 애도의 효과를 드러내는지를 정동과 애도의 회복, 새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망자가 무사히 천도되었다는 확신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는 곳에서 다양한 물질성과 네트워크의 결과로 얻는 효과이다. 심방이 망자가 생전에 입었던 옷을 들고 바닷물에 들어가 நீ를 건지는 행위, 무악의 장단에 맞춰 서승길을 닦는 행위 등에서 사용하는 옷, 땃가지, 돌맹이 등 곳에 동원되는 모든 물질들은 모두 망자의 천도를 재현한다. 이러한 물질을 매개로 망자의 죽음이 의례 속에 가시화되면서 애도는 망자와 관계의 단절이 아닌, 새로운 관계 맺음의 계기를 마련한다.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의 차이를 같게 해주지는 않더라도 언어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연결하게 해준다.<sup>51)</sup> 무훈곳에서 애도의 번역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감각 가능한 행위, 언어, 이미지, 기호로 전환함으로써, 삶과 죽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곧 삶 속에서 죽음을 길들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무훈곳에서 ANT의 관점은 망자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망자의 존재는 살아 있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세월호의 희생자처럼 수몰사고로 인해 시신 없는 죽음의 경우, 곧 망자의 존재를 감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자로서의 구성’은

51) 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낱, 2024, 53쪽.

유족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 ANT에서 무흔굿의 애도는 결과적으로 애도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불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회복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굿이 반복되고 정형화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안정화된 애도의 형식이 되면 굿은 하나의 ‘블랙박스(Black-Box)’로 기능하게 된다. 블랙박스는 “이중적인 네트워크가 하나의 행위자나 대상으로 축약되어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sup>52)</sup>를 말한다. 굿은 더 이상 그 안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인식하지 않고도, 누구나 애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블랙박스는 정형화된 애도의 방식을 만들지만, 동시에 의례 안에 담긴 복잡한 관계망에 대해서 망각할 위험도 있다. 본 연구는 무흔굿에서 엄격한 절차와 형식 뒤에 감춰진 인간과 비인간, 정동과 물질, 기술의 복잡한 얽힘을 드러냄으로써, 블랙박스를 해체하는 시도로 요약될 수 있다.

애도는 흔히 망자를 기억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차원을 넘어, 살아 있는 자가 망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연대 의식과 통한다. 이러한 점에서 애도의 번역은 죽음을 삶과의 단절이 아닌 새로운 관계 맺기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ANT관점에서 무흔굿은 애도를 수행하는 이중적 행위자들과의 관계적 네트워크를 보여주며, 이로부터 삶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애도를 통해 망자의 존재 방식을 새롭게 하여 상실의 아픔을 회복하기도 한다. 무흔굿의 애도는 바로 이러한 관계적 책임과 연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52) ‘블랙박스’란 복잡한 관계망이 안정화되어 더 이상 의심되지 않고 단일 행위자로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령, 사물의 경우 자동차와 같이 작동이 잘 되는 상태에서는 사물 자체를 블랙박스로 본다. 그러나 사물의 작동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각각의 부품을 확인하면 많은 부품들이 이중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블랙박스가 해체되면 원래의 네트워크로 펼쳐진다. 블랙박스화가 될수록 사람들은 그 안에 네트워크에는 무관심해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블랙박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브뤼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역음(2024), 앞의 책, 23~24쪽.

## 참고문헌

### 1. 단행본

- 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날, 2024, 1~182쪽.  
현용준, 이부영, 김수남, 『한국의 굿7-제주도 무혼굿』, 열화당, 1983, 1~106쪽.  
그랜트 볼머, 김수철 역, 『신유물론과 유물론』, 세창출판사, 2024, 1~336쪽.  
브루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엮음, 『인간, 사물, 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이음, 2010, 1~336쪽.  
아네르스 블록, 토르벤 엘고르 엔센, 황장진 역,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 하이브리드 세계의 하이브리드 사상』, 사월의 책, 2009, 1~376쪽.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정동정치』, 갈무리, 2018, 1~384쪽.

### 2. 논문

- 김현선, 「바다의 영혼, 바다의 치유」, 『해양유산』 5, 국립해양박물관, 2023, 49~76쪽.  
김동규, 「현대 한국무속의 비인간 길들이기」, 『종교문화비평』 43, 종교문화비평학회, 2023, 17~43쪽.  
이나빈 외, 「재난심리지원 실무자를 통해 본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애도반응과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산업』 45(3),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17, 5~34쪽.  
최진아, 「넋짓기굿 무구의 의례적 기능과 상징-군산지역 강신보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45,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 2015, 169~207쪽.

### 3. 자료

- <세월호 침몰 사고>,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접속 일자: 2025. 10. 15.  
제주학연구센터 (<http://www.jst.re.kr/main.do>)

ABSTRACT

The Performance of *Jeju Muhon-gut* and Mourning Based  
on the Actor–Network Theory (ANT)  
–Based on the Case of *Jeju* and *Sewolbo Muhon-gut*

Kang, Ji-young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and effects of mourning performed in ritual by drawing on Bruno Latour’s Actor–Network Theory (ANT) and the concept of ‘translation’. The purpose of the *Muhon-gut* is to console the deceased and enable the bereaved family and community to mourn the death. Focusing on photographic materials from a *Jeju Muhon-gut* held in 1981 and video materials from a *Sewol Ferry Muhon-gut* conducted at *Jeju Tapdong Plaza* in 2014,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lation of mourning and its effects within the relational networks formed by human and non-human actors.

From the ANT perspective, the world always exists as a hybrid world composed of humans and materials. From this ANT perspective, shamanic rituals contribute to dynamically understanding the form of the gut as multiple heterogeneous actors form networks. In the *Muhon-gut*, human actors include the shaman (*somi*), musicians, and shamans (*simbang*) who perform or support the gut’s progression, as well as the bereaved families and villagers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gut, and the photographers and participants documenting the ritual site. Moreover, the diverse materials used in the ritual not only represent the presence of the deity but also, in conjunction with all actors, reveal the network of the ritual itself. Thus, in the spirit-less ritual, the practice of mourning is continuously generated and reconfigured through the interactions of various actors, ceaselessly creating new mourning subjects.

The mourning practiced within the network of the *Muhon-gut* can be understood not as a temporary feeling or experience, but as a dynamic

process and relational practice. First, the *Muhon-gut* evokes affective effects within the process of interaction among actors possessing different natures and attributes. This affect is practical in that it transforms the emotions of despair and grief into a will for new life. Second, the *Muhon-gut*'s network translates the incomplete death of a drowned person into a mournable event. Thus, the deceased's existence is salvaged, summoned, and reconstituted as a being to be guided to the afterlife within the ritual. Third, through the connection of technical non-human actors, the mourning of the *Muhon-gut* is inscribed into media environments like online platforms. This network not only captures and stores mourning within the medium but also materializes it, rendering it a sensuous entity.

In the *Muhon-gut*, mourning manifests not as a simple act of recollection to remember the deceased, but as a relational practice that seeks to reconstruct and sustain the relationship with the deceased. The *Muhon-gut*'s network holds significance as a practical act that forms a new order connecting life and death, reconfiguring the mode of existence of the deceased.

**Key Words** Jeju Muhon-gut, Sewol ferry Muhon-gut, Actor-Network Theory, translation, mourning, affect, inscription, materiality

논문투고일: 2025.10.21. 심사완료일: 2025.11.11. 게재확정일: 2025.11.20.
--